

■ 제7대 총장 선임 광주대 김혁종 총장

“실력·인품 두루 갖춘 인재 양성 최선”

김혁종 광주대 총장이 최근 열린 학교법인 호심학원 광주대학교 이사회에서 제7대 총장으로 선임됐다. 지난 2003년 첫 총장 임명 이후 3선이다.

교육학 박사(고등교육행정)로 미국 유학시절 총장 인턴과정까지 밟은 김 총장은 ‘준비된 총장’답게 지난 8년 동안 광주대에 주도면밀한 변화를 가져왔다. 산업대에서 일반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쳐 광주대를 명실상부한 지역 명문사학으로 키워낸 것이다.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,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학생들의 능력신장을 자기계발을 도왔다.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컨소시엄사업,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도 헌신했다. 김 총장은 앞으로 4년 임기 중 좋은 학생을 더욱 더 많이 선발하고 잘 가르쳐, 광주대를 호남 최고의 사학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각오다.

지역사회 도움 오늘의 발전 일궈

-총장직을 세 번째 수행하게 됐는데.

▲총장직을 얼마나 오래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.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하루하루 후회없는 시간을 보내보니 오늘에 이룬 것 같다. 유학시절 고등교육 행정과 정책을 전공하고 총장 인턴십을 이수한 남다른 경력 덕분에 40대 젊은 나이에 총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생각보다는 용이하게 대학행정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학경영의 청사진을 제계획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

▲2004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첫 번째 임기는 내실에 충실했던 시기였다. 2006년 교육부 대학종합평가에서 교육 및 사회봉사 부문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일반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.

2007년 두 번째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2의 창학을 선포하고 국책사업 유치 등 CEO형 총장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. 2007년 공공디자인 3UP 전문인력양성사업의 누리사업 선정 등을 포함해 2011년 4월 현재까지 60여건, 3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했다. 앞으로도 30억 원 규모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50~6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 추가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.

-광주대는 지역의 오랜 사학으로서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.

▲우리 대학의 창설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광주대는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곤 박사께서 근대 민족사학의 애초적이고 구국적인 전통을 잇고자 한국사학의 정통 이념을 건학철학으로 삼았다.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,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 이처럼 창설정신이 대다수 다른 대학과 철학적 차별성을 지닌데다, 창설자인 호심 김인곤 박사가 교육학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다.

-지난 8년 임기 동안 정중동(靜中動)의 행보가 두드러졌다.

그러나 총장직을 수행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